

결실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회개는 영혼이라는 발을
 경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발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씨앗은 더 잘 자랍니다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October 16,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마가복음 7:31-37, 8:22-26 “에바다”- 열려라!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양 / 약한 나로 강하게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박진성 집사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3절)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 인도: 허성근 목사 / 허지운 사모

말씀 : 허성근 목사 / 이사야 41:10

쫄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 “결실의 달”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라.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를 10/21(금)부터 10/23(주)에 가집니다.
(강사: 허성근 목사 / 허지윤 사모)
- Picnic을 다음(10/30) 주일에 가집니다.
주일에배 오전 10:00 (장소: 지하 친교실)
잠정 목적지: **Matthiessen State Park**
- 정기 제직회 사역 보고 준비해 주십시오. 11/6 (주일) 오전 11:00
-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 자녀, 가족의 평안과 건강)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 - (1) 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2) 주일 오후 8시-9시 30분
(3) 화요일 오전 10시-11시
말씀 공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 10월의 사역 - 소금/빛 된 주간(17-22)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21-23)
선교 주간(23-29) 선교주일 / 피크닉(30) 제직회(11/6)

기도제목

-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0/9	10/16	10/23	10/30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윤집사	구 민집사
주일헌금위원	10/9	10/16	10/23	10/30
	박진성집사/최선윤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10월			
	최내권 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충성하여 특권을 누리는 1등 천국시민** / 마가복음 6:30-44

제자들이 잠시 휴식하도록 예수님이 호수를 가로질러 가실 때,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했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기쁨 속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고 시간 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잊었다. 이처럼 천국 시민의 의무는 천국을 지향하며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일이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충족히 채워주시는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간구에 응답하시고, 아픔을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신다. 주어진 의무에 충성하며, 주어진 특권도 제대로 누리는 1등 천국시민이 되자.

“에바다” - 열려라! / 마가복음 7:31-37, 8:22-26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셨고,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공통점들은?

첫째, 누군가에게 이끌리어 예수님 앞으로 왔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고쳐주셨다.

셋째, 말씀으로 고치시지 않으셨다. 직접 만지시고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넷째, 닫혔던 것들이 완전히 열렸다.

육체의 장애보다 영적 장애는 더 위험하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자.

“에바다” - 열려라! / 마가복음 7:31-37, 8:22-26

두 명의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는 기적에서 교훈이 있다. 한 명은 귀먹고 어눌하였고, 다른 이는 볼 수 없었다. 이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첫째, 귀머거리와 맹인 둘 다 누군가에게 이끌리어 예수께로 왔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던 누군가가 믿음으로 장애인을 붙잡히 여겼던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때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에 고침과 회복이 일어났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귀머거리와 맹인을 고쳐주셨다. 즉, 일대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 가까이 계신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내가 아파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

셋째,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직접 그들을 만지시고 침을 뱉어 안수하셨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굳이 보이는 방법으로 고침으로써 믿음의 수준이 낮은 이들이 믿도록 하시는 눈높이 교육이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

넷째, 닫혀 있던 것이 열렸다. 닫혔던 귀와 눈이 열렸다. 육체의 장애만이 고통이 아니라, 영적 장애는 더 심각하다. 진짜 장애는 눈이 있어도 봐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이고 귀머거리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었다. 이렇게 닫혀있던 눈과 귀를 예수님이 열어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당신은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못 보지 않는가. 믿음의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않는가. 믿음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나의 아픔만 알고 이웃과도 소통 못하지는 않는가.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눈과 귀를 열어 주시는 “에바다”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요즘 다 그래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다.

40도까지 올라가는 불볕더위에도, 영하 20 도의 강추위에도 살아 있는 한 우리의 체온은 36.5 도다. 이 36.5 도를 지켜내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살아 있는 것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에 저항하며 충돌하고 부딪친다. 상황과 환경에 나를 맡기지 않고 저항해서 지켜내는 것이 생명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 있는가, 살았으나 죽은 자인가?

자신이 시대적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저항하며 지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의 상황과 대세, 유행, 흐름 속에 나를 맡겨 동화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이것이 내 믿음과 우리 시대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강물이 흙탕물이 되어 범람할 때, 밑동째 뽑힌 아름드리 통나무가 뚱뚱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생명력이 없으면 저항하지 못하고 휩쓸려 떠내려갈 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물줄기 속에서도 물고기들은 떠내려가지 않았다. 손가락 두마디 크기 밖에 안 되는 새끼 송사리도 그 세찬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현상이었다.

크기나 무게로만 보면 몇만 배는 더 크고 무거운 통나무도 죽은 것은 저항 없이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코딱지만한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한 송사리는 절대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 세찬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몸이 찢어져라 고통스러워도 견딘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다.

떠내려가지 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하고 버티내는 것이 살아 있는 신앙이다. 크기와 숫자, 신앙의 연수와 대수가 내 믿음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증거가 아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시대의 탁류와 조류에 저항하지 못한 채 힘없이 떠내려가며 “요즘 다 그래요”라고 하는 것은 밑동 잘린 통나무처럼 죽은 신앙이다.

하지만 교회가 작고 초라해 보여도, 세상의 가치로든 신앙의 연수로든 자랑할 것 없는 내 모습 일지라도 오염된 이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대세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맞서고 충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